



매크로 변동성에 가려진 미-중 분쟁 재점화 우려

불편한 매크로 지표 흐름. WTI 연고점 경신, 달러인덱스도 전일 장중 한때 105pt 상회하면서 SVB 사태 때 나타난 연고점(105.31pt) 근접(104.8pt). 이중 미국채 10년 금리는 전월말대비 17bp 상승한 4.28%, 다시 전고점(4.33%) 트라이 중. 전고점 이후 금리가 다시 안정된 트리거는 8월 23일 발표된 S&P Global PMI 발표. 해당 지표에서 미국, 유럽 공히 서비스업 지수 중심으로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

통상적인 경우 제조업지수에 관심을 두지만 지난달 실질금리 안정 배경이 서비스업의 동반 둔화 기대였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업 지표에 반응이 강했음. 미국 8월 ISM 서비스업지수가 54.5로 전월치(52.7) 상회. PMI가 컨센서스를 2pt 상회한 것은 적지 않은 서프라이즈 수준, 전월대비 하락이 컨센서스(52.5)였던 것에 반해 오히려 상승하며 확장국면 시사. 발표 직후 미국채 10년금리는 약 5bp 상승

ISM 서비스업지수에 대한 시장 반응만으로 미국 경기 방향을 단정하기는 이름. 어제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제조업과 소비재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상승률 둔화,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제성장을 언급하며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상반기와 다를 수 있다고 평가. 금리, 유가, 달러 등 매크로 지표가 전고점 근접에도 실적 개선에 기반해 증시 레벨은 해당 시점보다 높음. 최근 나타나는 금리 변동성이 실적 기반의 증시 추세를 꺾기는 어렵다고 봄

어제 이슈 중 더 주목할 부분은 국가간 규제. EU의 빅테크 규제는 이미 시장이 예상하던 범위이나, 중국 공무원의 애플 사용 규제는 경계. 애플의 2Q23 기준 중국 향 매출이 19.2%, 이미 매출 성장세에 대한 의구심이 있던 애플, 대장주에 대한 의심은 시장 상단 눈높이를 제한하게 하는 요인.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중국의 7나노 반도체 자체 개발 가능성이 확인된 이슈. 최근 군사 용도의 최첨단 기술 중심으로만 규제하겠다는 중국에 다소 우호적인 스탠스였던 미국의 대중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 회의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당이 해당 이슈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려해볼 필요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